

정읍·고창서도 필승 결의

민주 도당 정읍·고창 지역 선대위, 대선 승리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2일 정읍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8090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위원장(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을 비롯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고창선거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을 결의했다.

정읍·고창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이날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임명돼 대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읍·고창선대위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 선대위', ▲모든 국민에게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 ▲국가미래와 비전을 제시하

는 '미래선대위'라는 중앙당 선대위 구성 원칙에 따라 지역별 공동선대위 원장과 상임총괄본부장단, 대변인, 종합상황실장 등의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지역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생기 전 정읍시장과 강광 전 정읍 시장은 정읍 공동선대위원장을, 박우정 전 고창군수와 이강수 전 고창군수는 고창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정읍·고창 선대위는 최초 구성 단계에서부터 당원여부를 떠나 범여권 인사를 대거 참여시킨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오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선대위 참여를 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 희망하는 역할을 부여해 '대선 승리가 곧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마음으로 차

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윤준병 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그 자체인 전북,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의의 표시인 동화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과 고창이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90%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자세로 정읍과 고창에서부터 일어난 바람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내는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미래세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정읍 고창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시민·군민들께서 민주당의 적봉후보를 반드시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12일 정읍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8090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전복'

민주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전복 찾아 6번째 캠페인 진행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상임위원장 박용진 의원, 공동위원장 오영환 이소영 강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이하 청정위)가 전복을 방문한다.

정치를 꿈꾸는 청년의 비전을 육성하고 응원하는 '#내가 미래의 이재명이다' 캠페인의 6번째 시리즈로, 전북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정위는 13일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에서 전북도의 청년 예비 선출직 공직자·청년당원 등 50명이 참석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과 미래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며, 박용진 청정위 상임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 예비출마자 10명이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출마의 변을 정견으로 발표하고 이어 청년으로서 정치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넓게 공유하는 청년정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에서 출선수범한 청년 당원들에게 공로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진다.

박용진 청정위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정치, 민주당치는 지역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노력으로 이어져왔다"며 "지역에서 청년이 주체가 돼 직접 참여하

고 세상을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은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주 문화공간 기린토원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전주예술인 복지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활동가들의 스타트업 창업과 취업 등 청년의 고민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공동선대위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해시태그 공동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16세 정당가입이 가능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청년세대의 정치 진입 장벽이 또 한 번 더 낮아졌다.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앞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는 MZ세대들과 함께, 청년 후보의 발굴과 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그 첫 시작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지역이 다음세대의 정치 참여 방안을 마련할 때"라며 "지역의 예비정치인을 기반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박수 치며 반기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1심서 실형

징역 6년 법정 구속... 재판부 "지위 이용 경제적 이익 행거"

550억원대 이스티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티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한 권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티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티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티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

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직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며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 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용담댐 방류피해 100% 배상을"

황의탁 도의원, 성명서 발표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이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9면>

황 의원은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평년보다 용담댐은 11m 높게 운영돼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기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하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운영 의 지방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의탁 의원은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 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이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읍내를 기구행진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되는 의견"이라며 "홍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

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정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황의탁 도의원이 낭독했으며, 200여명의 무주군민들이 신속한 배상을 주장하며, 무주군 읍내를 기구행진했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법안 대표발의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다.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

여건이 열악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오는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소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등을 어항 편의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